

데스크 시각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내가 검찰조직 안에서 검찰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세상은 영화 '내부자들', '더 킹' 등에서 설마 그럴리가 하면서 믿지 않았던 장면과 사건들이 실재하는 곳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검찰의 심장부에서' (오마이북)에서 이렇게 썼다. 윤석열 전 총장이 술자리에서 '내가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다는 대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맥락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적기

국민에 비친 검찰은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부영이 바위로 몰아세운 일은 국민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검찰에서 '왕따'였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역할을 잘 감당해보겠다"며 취임 각오를 밝힌 대목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상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의 적기인 것은 맞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검찰개혁을 승인했다. 개혁의 열망이 정점에 달했고 대의명분도 탄탄하다. 검찰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다. 때맞춰 쏟아져 나온 검찰

은펜칼럼



김창군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

글을 읽다 보면 '졸굴, 계속해서'의 의미로 사용된 '주구장창'이 눈차 눈에 띈다. '밤낮으로 길게 이어진 내'라는 한자의 뜻대로 '주야장창(晝夜長川)'이 설 자리에, 입말로 전하던 '주구장창'이 끼여든 것이다. 누군가는 '장창'이 '늘'을 뜻하는 특정 지역 사투리라고 주장하지만 뜻 모르는 '주구'에 '장창'을 조합하는 논리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야장창'에 이르기까지 끝바꿈한 표현이 널리 퍼지는 현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구어체로만 사용되는 비표준어, 즉 '입말'은 시대적 감각이 잘 반영되어 언어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말이란 본디 삶의 흔적이 담긴 것이니만큼 변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나 맥락과 의미를 잃은 채 소통되는 단어가 늘어나면 이는 언어의 사회적 변화 이전에 감각의 무더짐일 수 있다.

말의 변형과 오용이 일상화된 현실은 사고의 깊이와도 연결된다. 최근 어느 한문 교사의 페이스북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왔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한자 성어를 묻는 시험 문제에 일부 학생이 '럭키비키'라고

기고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426.4mm. 지난 17일 광주에 하루 동안 쏟아진 폭우량이다. 1939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이라고 한다. 곳곳에는 사흘간 527.2mm의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하다.

폭우가 휘둥고 간 흔적은 비단 인적·물적 피해뿐만이 아니다. 2011년 현충시설로 지정된 광주 유일의 6·25전쟁 격전지인 '옛 산동교'도 이번 폭우를 피해가지 못했다. 산동교의 지주대 일부가 부러지고 상판이 크게 휘는 등 구조 전반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났다.

산동교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목포와 신의주를 잇는 국도 1호선의 일부로 건설돼 6·25전쟁 당시 '군경합동부대'가 북한군의 광주 점령을 막기 위해 첫 전투를 벌인 광주 지역 유일의 6·25전적지다.

당시 북한군은 정읍을 점령하고 장성을 거쳐 광주로 남하하고 있었으나 호남을 방어하던 5사단 20연대는 이미 전선으로 이동한 뒤였다. 아군은 광주를 지키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줄잡아 8개에 달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완수 시점을 추측으로 못 박은 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요란한 공약만 선명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법안을 다듬자는 목소리까지 반동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는 서양 속담이 떠오른다.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를 검증·보완하도록 하는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4개 법안은 검찰 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법이 촘촘하지 않다 보니 법조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우선 피해자 고려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경찰이 일단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경찰의 애초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소사를 거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찰의 사건처리에 이의신청을 하려 해도 국수위에 따르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만 가능하다. 공수처법은 고소인, 고발인, 수사절차법은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배제된다.

법안이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아 충돌할 소지가 크다. 수사의 칼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경찰에 쥐어줄 뿐 비대해진 경찰력을 통제할 방안이나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힘과 권한이 쏠리면 오·남용과 부패는 필연이다. 적폐를 노출한 검찰을 개혁하면서 경찰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또 다른 '괴물'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이론을 떠올려 보면 해법은 간단하다. 내가 범죄자, 범죄

비어가는 말들

답했다고 한다.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바속죽'이란 뜻. 인듯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교육적 토대를 돌아보게 된다. 이 짧은 오답에 고전적 교양의 축소, 상식의 약화, 그리고 언어의 맥락 상실 문제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뜻 이상의 통찰을 담아 시대를 불문하고 유용한 교훈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변방 노인의 말[馬]'을 통해 이어지는 일련의 서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깨우침을 전승한다. 이처럼 새옹지마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답적 어휘가 아니라 삶을 읽어내는 깊이 있는 언어다. 그런데 이 지혜가 럭키비키라는 말장난에 덮이고 만다면 이는 엉뚱하면서도 치기 어린 오답이라기 보다는 교육이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위기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고전은 때로 시험의 지문에만 존재하고 상식은 시험 범위를 벗어난 잡지식으로 취급된다. 얼마나 빨리 정답을 고르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서 철학적 사고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 생각하는 힘이 사라진 곳에서는 단어는 있되 맥락이 없고 말이 있으나 함의는 증발한다. 그 결과가 용호상박(龍虎相搏)이나 호각지세(互角之勢)를 대신해 '자강두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등장하는 식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실종이 아니라 사고의 정지나 진배없다. 물론 한자 성어 하나를 모른다고 세상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지혜가 계승되지 않

‘산동교 전투’ 75년을 맞는 소회

위해 군인, 경찰, 학도병을 주축으로 '군·경찰동부대'인 26연대를 새롭게 편성해 방어에 나섰다. 전투를 치를 수 있는 훈련된 병력이 아니었음은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일본군이 두고 간 99식 소총과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부상병들에게서 회수한 M1소총이 전부였다. 그것도 병사 3명 중 1명만 무기를 소지하였다고 하니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1950년 7월 23일 광주 사수의 임무를 띤 군경합동부대는 북한군의 접근 차단 및 지연을 위해 새벽 4시경 산동교를 폭파하고 산동교에서 광주쪽으로 약간 떨어진 산등성이에 진지를 편성한다. 오전 11시 30분께 북한군 6사단이 산동교에 이르자 사력을 다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트럭 27대에 병력을 싣고 전차 3대를 앞세운 북한군을 대적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군경합동부대는 여수 방향으로 퇴각하고 만다.

'옛 산동교'에서 벌어진 이 전투로 김홍희 총경 등 30여명이 전사했으며 장영규 총경 등 5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비록 산동교 전투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광주 시민이 피난할 시간을 다소나마 확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광주는 흔히 '의향'이라고들 한다. 정의의 고장이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것이 일제 치하인 1907년 기준으로 호남의병이 한말의병의 60%가 넘는 정도로 항일독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것이다.

수사역량 국민의 자산으로

다행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최근 취임사에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자 검찰개혁의 모범답안이다. 실천을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이렇게 말했다. "정치에 있어서도 소비자·민주주의가 성립될 때 그 정치가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구매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치의 소비자를 유권자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유권자로서 선거와 투표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검찰개혁으로 바꾸면 당연히 과제가 선포하게 떠오른다. 이번 검찰개혁은 목표 생산에 매몰돼 부실제품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감·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의 한계를 절감했다.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윤 전 대통령 잡겠다고 수사에 나서 혼란을 부추기고 수사권 논란에 휘말려 허둥댔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공수처가 그렇게 국민 시야에서 사라졌다.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경 수사권의 틈새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식상한 말이나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당위지만, 하자 있는 제품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검찰개혁은 국민을 피해자로 만든다.

는 교육,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성은 필요한 법이다. 공통의 문화와 역사 인식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의 틀이 사라진, 즉 생각을 멈춘 사회는 이른바 '사고의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으니 말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의 '밈'(meme, 패러디되고 변조되며 퍼지는 문화 요소)'으로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자강두천'은 수준 낮은 싸움을 비꼬는 의미로 확장되며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의 대결)와 함께 조롱의 의미로 유행가 바뀌고 있다. 이처럼 패러디와 웃음의 소재로써 언어가 소비될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춰진 공백을 보지 못하게 된다.

언어는 결국 사회를 바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흐릿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로 된다. 말의 의미가 사라지고 맥락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공허한 말장난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저 '말'이 아니라 '뜻'을 되살려야 한다. 지나쳐 가는 유행일지라도 난용(亂用)되는 언어를 보며 우리 사회가 깊이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럼으로써 보이지만 말의 겉데기만 남은 시대에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언어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말장난이나 유행을 넘어서 사고의 수준과 교육의 방향을 되묻는 반성의 계기여야 한다. 표현이 넘쳐나는 지금, 언어의 깊이를 되살리는 일은 옛말 지키기를 넘어 함께 사유하고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걸음마다.

립운동의 가장 치열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뿐인가 3·1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일컫는 학생 독립운동의 발원지이자 주축이었다.

6·25 전쟁 시 학도병 최초의 전투인 '화계전투'의 주인공들도 광주·전남지역의 어린 학도병들이었다. 15·18세의 학생 180여명이 조국수호의 혈서를 쓰고 자원 입대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의로운 정신은 군부독재에 목숨으로 맞선 5·18민주화 운동으로 귀결됐다.

보훈이란 국가가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발전을 위해 국가에 헌신한 국민들의 공헌에 보답하는 행위로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여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정의로운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거나와 사회통합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해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옛 산동교'가 미래세대에게 애국의 가치를 전승하는 현충시설로 영구히 보존돼야 하는 이유이다.

오늘 7월 23일은 '산동교 전투' 75주년이다. '새 산동교'에서 이번 폭우로 교각 중단 부분이 심각히 파손된 '옛 산동교'를 맡았어 바라본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옛 산동교'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리로 재대로 된 선양사업이 이루어져 '의향'광주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APEC 정상회의 D-100, 경제계 성공 개최 앞장

2025 광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APEC은 환태평양 21개 국가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매년 의장국에 모여 정상회의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선 1991년(3회·서울)과 2005년(17회·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에는 10월 31일부터 1박 2일 간 광주에서 열린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외에도 재무장관회의, CEO 서밋, 기업인 자문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APEC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인 만큼 성공 개최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중단됐던 정상 외교를 재개하고 추락했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의장국 신분으로 주요 정상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외교와 안보,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야 하는 이

유다. APEC은 각 국의 기업인들이 만남을 통해 교역 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광주 APEC은 미국의 관세전정으로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APEC 기업인 자문회의(ABAC)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ABAC 의장을 맡고 있는 조현상 HS호성 부회장은 벌써부터 성공 개최를 위해 민간 외교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해 트영 끄영 국가주석에게 APEC CEO 서밋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ABAC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광주 APEC 회의에 제출할 건의문 초안을 검토하는 등 최일선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경제계가 힘을 모아 투트랙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대적 수술 불가피

광주시가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 운영 개편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그제 처음으로 '대중교통 혁신회의'를 갖고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방향과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노선개편 초안을 마련해 시민공청회를 거친 뒤 10월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

핵심은 준공영제와 노선개편이다. '돈 먹는 하마'인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연계해 노선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다. 준공영제를 비롯해 광주 시내버스 혁신 요구는 지난 6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더 커졌다.

광주시는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7년 196억원을 지원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에는 첫 해에 비해 615%

나 늘어난 1402억원을 지원할 정도로 밀 빠진 독이 되고 있다. 준공영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시내버스 업계에선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도심 주요 도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서울과 부산에선 시행하고 있다.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확보하는 만큼 수익금이 현재보다 10% 이상 늘고 수송 분담률도 올리는 장점이 있다. '대차보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광주시의 교통정책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타 도시보다 산 요금을 인상해 준공영제 손실을 메꾸는 방법도 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시민의 관점에서 시내버스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의 개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역사/ 삼천리 방방 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 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

‘삼천만’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가 유명한 농민가다. 작사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농업운동가 출신 김성훈 전 교수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교 농대 재학 당시 등 아리에서 만들어 불렀던 노래가 시조였다고 한다. 농민가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 지상주의로 인한 농업 수탈과 그 뒤 거둬들인 개방농정에 맞서 농민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수십 년 슬하게 부른 집회 대표곡이다. 고추제값 받기 운동으로부터 농협민주화, 수입개방, 한미FTA 등 1970년대부터 농민들의 투쟁현장을 함께 해왔다.

민주화운동이 활발하던 1980년대 대학가에는 농민가와 함께 ‘해방 춤’이라는 게 있었다. 해방 춤은 따라 하기 쉬운 네 박자 춤으로 농민가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두 사람이 옆으로 부딪친 다음 팔을 걸고 한 바퀴 도는 춤이다. 당시 학생들은 농민가를 부르며 해방 춤을 추고 교문으로 나아가 스크럼을 짜고 거리에서 독재정권과 맞섰다. 농민들의 슬픔을 달래고 결의를 다졌던 노래와 춤은 지금도 농민의데가로 불리고 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농민가와 해방 춤이 되살아 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는 소식 이전해지면서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회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집회를 열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도 TRQ(자유관세항당) 수입 남발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가뜩이나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파멸에 몰린 상황인데 너무하다며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다.

가사처럼 ‘찬란한 승리의 그 날’이 오지 않아서겠지만, 하루 빨리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이고 농민가나 해방 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역시 간절하다.

/김대성 전남 사·중부 전북 취재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에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